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6호 【우체 제 25409호】 주세 105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리만진 동지, 홍승무 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우리 나라를 존엄 높은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빛내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한생토록 간직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풀없는 행복으로 새치게 끓어넘치고 있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구상에 따라 진행된 핵탄두 폭발 시험의 장쾌한 최성은 9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고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의 무적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떨친 자랑찬 승전포성이며 남강도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면상을 후려갈진 무서운 불벼락, 통쾌한 대승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려져올라 선군조선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참가자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운해의 서막을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의 대성공으로 열어제끼고 정의의 핵보급을 더욱 역세게 버려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들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전투적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도로 실천화된 위대한 핵탄두 폭발 시험을 통하여 주체의 핵강국,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하는데 기여한 위훈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1950년대 군자리정신으로 핵무기병기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당당한 핵보유강국으로 우리의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공고히 하되는데서 보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 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려져올라 하늘향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조선로동당의 핵강국 건설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갈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정치보도반

김정은령도자께서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지도,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세계언론들 일제히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형의 정지위성발사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지도,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조선이 새형의 로켓발사장에서 시험을 성공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형의 정지위성발사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지도,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조선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발동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진

행하였다고 밝혔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형의 정지위성발사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지도,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조선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발동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진

행하였다고 밝혔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형의 정지위성발사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지도,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조선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발동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진

행하였다고 밝혔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형의 정지위성발사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지도, 조선을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조선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발동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토론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토론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주에 즈음하여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과 인도네시아 라비프라 바르베라 브라마마하사에서 1일과 4일에 진행되었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겸 비외흐르만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와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날로 황포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핵억력으로 쳐부리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데 대하여 열거하고 그 높은 지주의 기치를 높이 불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지지와 변태생활을 더욱 적극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인도네시아 라비프라 바르베라 브

라마마하사 사장 하룬 씨누파이는 다 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끊임없는 도전과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 시킬데 대한 새로운 모임을 제시하고 그를 일관하게 관철해가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높이 모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 동지께서 김정일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자유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주에 즈음하여 메히프, 우간다에서 업적 토론회가 2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대영상이 모셔져있었다.

행사장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지 회고 메히프전우회, 메히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정령위원회의 인사들과 군

중이 참가하였다.

김일성, 김정일 동지 회고 메히프전우회와 김일성 동지 회고 메히프전우회,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명도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유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보낼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믿음과 온정속에 사회주의 조국을 방호하여 공화국창건 68돐경축행사에 참가한 제일부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꿈에도 뵈고싶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최세의 천출위업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처음에 맞이하는 천국명절을 어머니조국에서 맞이할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을 해외혁명동지로 한집안식술로 품에 안아 극진히 아끼고 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달리 뜨겁게 올해의 9월명절에 총련축하단을 조국에 불러주시고 숙식조견으로부터 체류일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배려해주시며 친어머님의 사랑과 온정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은혜로운 어머니사랑속에 정없이 흘러간 이번 조국명절의 나날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영광이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령도의 한계지를 끝없는 환희와 격정속에 목격한 행운의 계기였으며 막대한 수명을 모신 인민의 복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것인가를 뼈속깊이 새겨안은 잊지 못할 나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속에 성대히 맞이한 공화국창건 68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한바탕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조국의 존엄전체의 위력, 동맹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선군조선의 위력이 단번에 과시된 역사적 계기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를 전강시킨 9월의 경쾌한 행진으로 백두산대국의 천국명절을 최상의 경지에서 맞이해주시고 인민력사가 시작되어 아직 이 지구상에 있어 본적이 없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진보성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인민사랑의 새 전설을 수놓으시며 천만군민의 애국적열정을 진폭시켜주시었습니다.
저희들은 총애받고자하는 비록한 여러 경속형사상들과 참관자들마다에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인방에 펼쳐주시고 자연재해가 들이닥친 조국의 북변방역 인민사수인, 인민복무전의 눈물겨운 희곡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다함없는 호모와 감사의 정을 가슴깊이 새겨주시었습니다.
구급진위 안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에 걸려있던 그날 저희들은 잊지 못할 영웅의 단상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사랑하셨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영웅의 모습이 어려와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본 당이시고 조국이시며 인민의 운명이시라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 조선의 모든 영광과 행복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만들어주시는 길에 있다는 조국인민들의 진정에 넘친 한복소리에서 저희들은 자본주의가 언제 가도 총애할수 없는 사회주의조국의 본래, 시로 들고 이르는 교양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가

득의 넘치는 어머니조국의 참모습을 더욱 심장속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조국방문의 나날 저희들은 과학기술전당과 민물레학습공장, 평양중독학원, 중앙총련과 지원박관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를 참관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리상과 열정을 최상의 높이에서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총정과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세계일에 크나큰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항으로 질서의 애국자이시며 천하제일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국의 북변방역에서 권좌 위력의 기적적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태양의 나라, 가장 북방은 인민의 락원으로 인민단민의 끝없는 각광과 경관을 받으며 영원무궁토록 강성명연할것입니다.
저희들은 삶의 순간순간을 수행적사용위로 빛내어나가는 조국인민들처럼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굳게 믿고 따를것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경시유하는 건전한 해외혁명동지로 현생을 없애고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리념과교포동지사상과 열정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총련조직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제일조선인민들의 새로운 전진기틀을 힘있게 열어나갈것입니다.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령적인 서한과 축하문물에서 가르쳐주시는데로 5대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기공조건설과 민족교육사업, 새 세대들끼리의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 총련을 전진에 굳건하고 군중지반이 강하며 전도가 양양한 해외조선조직으로 더욱 단결되어 다져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16을 지향한 100일 집결전을 조직수호, 조국호상전으로 더욱 박력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내외원수들의 비열하고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행동을 애국애국의 드세한 풍세로 산산이 깃부서버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맑은 비록 지역에 있어도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마다에 새겨두고 백두산대국강국건설에 더욱 총력있게 이바지해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애국충성의 모반, 세계화괴교포분공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 높이 펼쳐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상은 우리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가장 큰 소원이요 최대의 행복입니다.
영원한 태양의 나라 인민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생이시며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게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제105(2016) 9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돐경축 재일본
조선인축하단 성원일동**

사 설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대한 전사회적인 지원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지금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은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불사신마냥 펼쳐입어나 피해지역에 급파된 인민군장병들, 불경대원들과 함께 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전후적소와 불심방면의 아낌없는 지원에 보내고있는 천만군민의 지성에 무한히 고무되어 불공의 힘과 용기를 전백배로 분출시키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북부 피해지역의 인민들을 위하여 중대결단을 내린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200일전투의 심장깊이 방향, 최전방에 대한 지원열풍을 고조시켜 서로 돕고 위해주시는 우리 사회의 대동모를 더욱 높이 밀양해 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 단결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래와 대동모를 적극 살려나가기 바란다.》
집단주의위력으로 만만시련을 과감히 뚫고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투쟁전통이다. 불비뿐이지는 건설길을 헤치며 싸우는 고지에 로식량과 탄약을 나르던 남강마을의 인민들이 그렇듯이, 북부 피해지역 인민들은 인민군대의 지원에 힘입어 벌인 군지비로동계급의 백철분공의 투쟁정신은 오늘날도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혁명의 비방울마냥 살아 날리고있다. 북부 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전사회적 지원은 군민단결, 혼연일체의 전통을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며 북변방역에 있어서 참조적이며 혁명적이며 기적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인 집단주의위력이 안아오는 대승리이다.
북부피해복구전투, 피해지역 인

민들에 대한 지원열풍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한 애국충정의 사업이다. 오늘 우리 당에는 더 명기리원공의 환희보다도 제해지역 인민들의 새집들이소식이 맺힌 때로 더 귀중하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은 가세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인민을 위함수호,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혁명대오가 강해지고 혁명이 전진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관이다. 서로 돕고 위해주시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지원열풍은 북변방역에서 로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원동력으로 될것이다.
지금 전사회적으로 함축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당의 호소문에 열렬히 응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각지의 공장, 기업소에서 북부피해복구사업을 200일전투의 심장깊이로 반영하고 피해지역사업에 필요한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고있으며 세멘트와 철강재, 마감재생성단위들에서는 한디의 세멘트, 한그의 강재라도 더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중산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온 나라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친부모, 친형제들 등을 중심으로 식량과 각종 생활필수품 등을 성실성의로 마련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내주고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대한 전사회적 지원열풍, 이것은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떠나지 않는 존재와 혁명의 전진에 대하여 단 한 시도 생각대반적이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천만군민이 한사합같이 펼쳐나가는 위대한 투쟁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생명수였기 보여주시는 감명깊은 화풍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북부

우주정복의 길에서 또 하나의 사변을 안아온 기세로 피해복구에 총집중

북부전선에서 보내온 소식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

각지에서 보내는 지원물자 련일 도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대가 정에서 교양한 사상정신적품 모를 지니고 하나로 굳게 뭉쳐 힘있게 투쟁하며 살아가고있으며 사투를 끊없이 감동시키는 승리의 투쟁사상과 도덕적인 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습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열의의 힘으로 지원물자들이 지금 함축도 북부피해지역에 련일 도착하고있다.
지난 9월 내각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 총련일군들이 보낸 지원물자들이 청진시에 도착한 때로부터 전국각지의 수많은 지원물자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인민군부대들에서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량의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고있다.
온 나라의 뜨거운 정이 어려 있는 지원물자를 가득 싣고 피해지역으로 출격하여 달려오는

북부전선으로 세멘트수송선 출항

남 포 항 에 서
당의 전후적소를 높이 받들고 인민들이 일떠선 남포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3일간 긴장한 전투를 벌려 수천톤의 세멘트를 실은 첫 수송선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떠나보냈다.
총련에는 화재에 실려온 세멘트를 무리코 재발송기에 포장하여 배에 싣는에 열출이상의 시일이 걸렸다. 하지만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신수송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철야근무를 벌려 단 3일만에 어 심을 안겨주고 복구전투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함흥시 사포구역에서 사는 김태정, 평양시 중구역에서 사는 오성일가족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수많은 주민들이 지원물자를 위하여는 심정으로 많은 량의 지원물자들을 정성껏 마련하여 피해지역으로 보내주었다.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인민들, 인민군인들도 보내는 지원물자들을 피해지역 주민들과 북부에 펼쳐나간 전투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복구기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현지보도단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평 양 시 에 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함축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회위력의 기적적승리를 경회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에서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우고 김철과 철업을 비롯한 금속공업에서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지난 20일 평양시에서는 화물자동차에 수백대의 화물을 싣어 북부전선에 보낸 철강재생산으로 들끓고있는 천리마제강



북부피해지역의 복구사업에 힘입고, 함축도 북부피해지역에 지원된 세멘트수송선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 김광희)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사회주의 조국강산에 어려오는 어머니의 미소

어머님께서 위중한 병석에서도 불빛같은 미소를 지으시었다.

《장군님! 밤이 썩 깊었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근심하시고 어서 돌아가 보시면 일을 마쳐 보십시오. 치료받으러 정신이 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치료받 좀더 받고 문 곁에 돌아가겠습니다.》

너무도 따뜻한 미소, 너무도 평온한 음성이었다. 그런데 따뜻한 그 미소가, 지어낸 듯 그 음성이 마지않고, 마지막음성으로 말을 어이 알았나.

주제 38(1949)년 9월 22일 새벽 우리 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의 손을 조용히 움켜쥐시었다.

《이제 밤은 웃면 사람이 가다니... 그 불같은 사람이 가다니... 이 렇게 밝리...》

그이의 음성은 비통하게 울려왔다. 믿어지지 않아 멍하니 되뇌어지었다. 나는 그가 단 하루라도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았다면 더 말하지 않았다고, 일생동안 고생한 시키다가 먼저 보냈어야 제일 가슴아프다고 하시며 애석함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신 우리 수령님.

서른두해, 너무도 짧은 생애였다. 조국의 해방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열렬한 혁명가, 남달리 조국을 사랑하셨고 동지들을 사랑하셨으며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온몸을 불태우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총지한 혁명전사이시었던 김정숙동지의 불빛같은 미소가 사회주의조국강산에 어려오나.

위대한 명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어머님의 환생은 길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 혁명가로써, 인간으로서 환생을 어떻게 할까 무렵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심대한 모험을 보여주신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이 살아계십니다.》

어머님을 잊지 못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끝없이 이어져있는 오산리기술, 풍물있는 군복차림에 진달래를 인으시고 밝은 미소를 짓고계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어머님의 풍상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눈가에 때부신내장군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비껴흐른다.

김정숙동지께서 우리곁을 떠나신지도 67년, 지나는 그 세월은 조국과 혁명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려 버치신 어머니에 대한 환희는 그리움이 환골탈탈기 년후에도 새겨져온 나날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김정숙동지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은 근로자들 -회령혁명사적지에서-

조국강산에 넘치는 어머니의 미소 영전하고 인민이 안고 사는 어머니의 환희가 그토록 위대하기때문이라.

한 일군이 전하는 희상담이 있다. 주제 71(1982)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꾼들과 함께 평성시혁명렬사릉에 오르신 일이 있었다. 투사들의 탄신상을 보고 또 보시며 이들도 부르시고 위문도 되게하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한 곳에 이르시어 말씀이 없으셨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미소를 짓고계시었다.

누구보다 나누실 대화가 많으시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만 보시었다. 려 시간이 흐른 뒤 그 하얀한 말씀 을 대신하는 그의 음성이 울려왔다. 《우리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일꾼들의 눈물은 펴뿔이 젖어붙었다. 촬영위치를 잡고 샤라를 누르려는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잘 보이는가에

대하여 나직이 물으시었다. 그것은 김정숙동지의 탄생 65돐 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

저를 추억속에 실려온다. 시령부로 향하는 원주의 추수가 백전이라 해도 그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시고 환호에 투사들의 탄신상을 보고 또 보시며 이들도 부르시고 위문도 되게하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한 곳에 이르시어 말씀이 없으셨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미소를 짓고계시었다.

누구보다 나누실 대화가 많으시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만 보시었다. 려 시간이 흐른 뒤 그 하얀한 말씀 을 대신하는 그의 음성이 울려왔다. 《우리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일꾼들의 눈물은 펴뿔이 젖어붙었다. 촬영위치를 잡고 샤라를 누르려는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잘 보이는가에

대하여 나직이 물으시었다. 그것은 김정숙동지의 탄생 65돐 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

저를 추억속에 실려온다. 시령부로 향하는 원주의 추수가 백전이라 해도 그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시고 환호에 투사들의 탄신상을 보고 또 보시며 이들도 부르시고 위문도 되게하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한 곳에 이르시어 말씀이 없으셨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미소를 짓고계시었다.

누구보다 나누실 대화가 많으시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만 보시었다. 려 시간이 흐른 뒤 그 하얀한 말씀 을 대신하는 그의 음성이 울려왔다. 《우리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일꾼들의 눈물은 펴뿔이 젖어붙었다. 촬영위치를 잡고 샤라를 누르려는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잘 보이는가에

《이 한문 제가 되더라도 장군님께서 안병하시면 한이 없었어.》

전설적호위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시기에 도 변함없는 호위병이 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시었다. 주제 36(1947)년 무더운 여름날의 감동깊은 사상을 목격하게 된 어느 한 일꾼의 안색은 이런 말을 남기었다.

《그 일 음은 전 해 겨울에 김정숙어머님께서 대동강가에 나가시어 가져다가 버겨주어 차차차목 끝 어 정실스런게 전사하셨던것이었다. 지금은 편한 집이던 평릉, 선 풍기, 평릉 등 다 갖춰놓고 살지만 그때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 수령님의 데에도 없었다.》

김정숙어머님의 정성이 그 모든것 대신하였다. ...》

소중한 추억으로 인민이 안고 사는 애송불멸화, 온 나라가 전열의 돌 돌 끊인 해방후 어느날 크면될 명날을 신 백두산내장군에 대한 글을 쓰려고

《이 한문 제가 되더라도 장군님께서 안병하시면 한이 없었어.》

전설적호위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시기에 도 변함없는 호위병이 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시었다. 주제 36(1947)년 무더운 여름날의 감동깊은 사상을 목격하게 된 어느 한 일꾼의 안색은 이런 말을 남기었다.

《그 일 음은 전 해 겨울에 김정숙어머님께서 대동강가에 나가시어 가져다가 버겨주어 차차차목 끝 어 정실스런게 전사하셨던것이었다. 지금은 편한 집이던 평릉, 선 풍기, 평릉 등 다 갖춰놓고 살지만 그때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 수령님의 데에도 없었다.》

김정숙어머님의 정성이 그 모든것 대신하였다. ...》

소중한 추억으로 인민이 안고 사는 애송불멸화, 온 나라가 전열의 돌 돌 끊인 해방후 어느날 크면될 명날을 신 백두산내장군에 대한 글을 쓰려고

《이 한문 제가 되더라도 장군님께서 안병하시면 한이 없었어.》

전설적호위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시기에 도 변함없는 호위병이 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시었다. 주제 36(1947)년 무더운 여름날의 감동깊은 사상을 목격하게 된 어느 한 일꾼의 안색은 이런 말을 남기었다.

《그 일 음은 전 해 겨울에 김정숙어머님께서 대동강가에 나가시어 가져다가 버겨주어 차차차목 끝 어 정실스런게 전사하셨던것이었다. 지금은 편한 집이던 평릉, 선 풍기, 평릉 등 다 갖춰놓고 살지만 그때는 그런 물건들이 우리 수령님의 데에도 없었다.》

김정숙어머님의 정성이 그 모든것 대신하였다. ...》

소중한 추억으로 인민이 안고 사는 애송불멸화, 온 나라가 전열의 돌 돌 끊인 해방후 어느날 크면될 명날을 신 백두산내장군에 대한 글을 쓰려고

혁명의 사령부를 옹위하는 길에서

명사격술의 비결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보려고 백두산일영을 찾아왔던 피레순동지가 내 대원들의 별칭을 지날 때였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무가 칭호를 하계시었다.

걸음을 멈추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피레순동지에게 함께 가던 유격대의 한 중대장이 김정숙동지는 온 부대가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이름난 백발백중의 명사수이시라고 경탄에 한 어므로 말하였다.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주제 29(1940)년 3월 진행된 흥기하현투에 있는 입대의 작전이 사령부가 한 무리의 작전이 사령부가

금삼금 기어드는 적들을 향해 총을 쏘시면서 비호같이 사령부와 다른 방향으로 달리시었다. 사령부와 멀리 떨어진 지점에 이르시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아 품드러나우며 의지하시어 팔려오는 눈물속에 백발백중의 명중탄을 쏘우시었다.

뜻밖의 총소리를 듣고 경외중대원들이 달려왔을 때에는 이미 총소리 가 멎은 뒤였다. 그날 대원들은 김정숙동지의 배낭속에 얹혀진 양대기에서 2개의 탄알자국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김정숙동지께서 늘봄을 유인한 뒤 멀리서 대적한 두말이 그 양 세기를 뚫고 지나갔던것이었다. 수령님사용위의 최고책임자이신 김정숙동지를 부르며 대원들은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었다.

친위전사

세 조국건설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별처럼 빛나고있다.

주제 35(1946)년 2월 어느날 밤이었다.

력사적인 북조선현시인민위원회수령을 앞두고 한밤을 지새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전에 조용히 서계시었다.

한 일군이 김정숙동지에게 여기

오늘도 울려오는 삼일포의 메아리

삼일포, 맑은 불경 총성은 조수기의 아들다움과 푸른 잎새 때이고신 소나무를, 병풍처럼 둘러친 봉우리가 한복의 그림 처럼 안겨주는 동해의 명승, 예로부터 관동팔경의 하나로, 우리 나라 조수총에서 제일 으뜸으로 일러오는 동해의 전하 갈승 삼일포에 과연 언제부터 혁명의 불은 쏘이 있었었는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이 살아계십니다.》

백만명 삼일포에 단풍이 붉게 때린 혁명의 그대 어머니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이곳에 오시어 울려오는 총성은 오늘날도 세월의 인력을 넘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 수령님사용위의 신념과 의지, 조선혁명의 근본정

신, 계속혁명의 전의를 세겨주며 신군조선의 하늘가에 울려오 메아리이다.

《이 못말 69년 9월 28일, 요요를 베는 총성이 삼일포에 울렸다.》

뜻깊은 이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 백두산에서 펼쳐진 사격승배를 보시고 하시어 어디 한문 불을 쏘라고 하시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항일의 경위 대원자제로 어머니수령님께서 넘겨주시는 권총을 정중히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목표를 향해 총탄을 날리시었다.

한순에 총을 힘있게 겨머시어 그 목표를 단번에 명중하시는 항일의 명사수, 백두산내장군 김정숙동지!

그이의 근엄하신 모습에 관관 하던 삼일포의 물결은 격항해 설레이었다. 삼일포에 뒤덮였던 단풍나무잎들도 붉은빛을 띠는 듯이 발산하였다.

일꾼들은 저저마다 탄성을 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까뜨반투

비밀련방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비다 데비 반다리각하

나는 넬라국정정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확대발전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 105(2016)년 9월 20일 평 양

예레반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쥬 싸르끼싼각하

나는 아르메니아공화국 국정정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 하여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 105(2016)년 9월 21일 평 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황금해창조의 만수기를 높이 휘날리고있는 남포대경수산업소 근로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문명-2》를 짧은 기간에 건조하고 시화중공업에 대한 해상 봉사를 진행하여 당의 인민사랑의 손길이 어로부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사업소에서는 당의 사회주의 문명건설전선수상을 높이 받들고 여러모로 선 불고기를 성 의껏 마련하여 지역ավորան과 중앙동맹원에게 보내주어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더욱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사업소의 청년전선원들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청년근공의 주인공, 창조적 개인에게 성숙의 열매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수산물생산과 가물, 배우리를 비롯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두분, 시위를 해치키는 혁명적 위훈을 세우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7차대회 뜻을 뜻깊게 맞이하는 자랑을 떨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전에서 남포대경수산업소

중심자랑을 차지하고 적극적인 애로근로에 기여한 우호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여 《이제이경》을 걸치며 원강한 공격정신과 대담한 배짱을 지니고 인민사업을 개척하여 사회의 고귀어족들이 우리 인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맹언하였다.

그들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복도 복부해복구진선에서 진화위훈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지역자랑의 창조대 전,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전 행단위의 영예를 높이 펼쳐나갈 줄라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사업소의 모든 일꾼들과 기술자, 어로공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무리모시며 혁명전선의 순결한 항성 과 도덕의리를 지니고 당의 명도를 총직하게 만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천리에 이어진 우리 집뜨락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지성을 바치고있는 평양시민들의 소행

그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을 본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위투쟁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들인 그날 수도시민들은 누구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접한 순간부터 포병소비품들을 찾아나갔고 가두의 내인들은 먼곳에 가있는 아들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원물자를 성의있게 마련했으며 소년단원들도 좋은 학습장을 고르고 필갑의 연결을 돕어 북부지역의 동무들에게 보내달라고 마음을 합쳤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되었고 오노도 일리라 가정들에서, 출퇴근길마다에서 매일 듣게 되는 복년의 소식.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더 많은 물자를 보내주고 마음을 합치는 뜨거운 그 모습들은 같은 꽃은 서로 다르고 물은 비록 달리 떨어지고 있어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읽고 사자 화북한 대가정의 울림을 다시금

이 세상에 다치지 않았을 때 수도의 가정에서는 감동적인 화북들이 편이여 펼쳐지고 있었다.

9월 11일 일요일 저녁 평양외국어대학 교원 리남희 동무는 안혜에게 자그마한 봉투 한개를 꺼내놓으며 자기들이 세간날 때 부모들이 마련해준 자금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내자는 결심을 미루었다.

안혜는 그제서야 하루일을 마치고 집안에 들어서 책상앞에 앉아 잠을 떠난 어머니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던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저쪽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미용이 민발하는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사회라고, 이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며 화북동무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한 어머니모습을 가슴속에서 지워내려 노력했다. 남편이 내린 자그마한 봉투안에는 시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합쳐달라고 보내준 적지 않은 자금을 들어있었다.

리남희 동무의 가정에서 이런 뜨거운 정성이 펼쳐지고 있을 때 대동강구역에서 사는

로동당시대의 봉사자 리명규 영웅의 가정에서도 가슴뜨거운 담들이 오가고있었다.

《북쪽은 일찍 날이 차지는 데 그들이 감기에라도 들면 어찌겠나. 내 생각엔 두통한 옷을 보내주면 좋을것 같구나.》

리명규 영웅의 이야기에 안혜비 이불, 머니리들이 한결같이 호응해나갔다. 그들은 차곡차곡 모았던 자금이 많은 옷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고 남편이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떠난 그날 밤 대동강구역 녀맹위원장 장미희 동무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다음날 그는 많은 량의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해당 당조직을 찾아갔다.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생각에 화북동무는 이우교계선 우리 학습반을 그려보면서 좋은 일한 가지라도 더 하고싶다면서 절실히 토로하던 장미희 동무. 얼마나 아픈 마음을 애통하게

피해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투명한 솜옷을 100벌이나 마련하여 보내준 보진성 제3 예방원 의사 박성진동무며 친

평양 일용품공장에서

평안북도 평양시 평양 일용품공장에서는 김철영 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였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을 믿고 당과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부딪힌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어느 단위, 어느 일터에서나 증산의 열기가 세계에 일어났고 있다. 한의 세멘트, 한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 한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더 노력하여 피해복구전선에 시급히 보내줄 일념으로 누구나 뛰고 또 뛰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아침, 평양일용품공장 기술실에서는 작업전의 일과대로 피해복구복복과 진흥을 위하여, 평안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위투쟁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는 평양 일용품공장 기술실장 김철영 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였다.

평안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위투쟁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는 평양 일용품공장 기술실장 김철영 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였다.

다시금... 함께 나누기... 어린이... 새겨진... 새겨진... 새겨진...

지원열풍속에 늘어나는 청년미용선구자들

《처녀 어머니》의 마음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떠난 어머니

지원열풍속에 늘어나는 청년미용선구자들

지원열풍속에 늘어나는 청년미용선구자들

지원열풍속에 늘어나는 청년미용선구자들

지원열풍속에 늘어나는 청년미용선구자들

청춘들이 설 자리

청춘들이 설 자리

청춘들이 설 자리

청춘들이 설 자리

승리자가 되여 다시 만나자

승리자가 되여 다시 만나자

승리자가 되여 다시 만나자

승리자가 되여 다시 만나자

북부전선에 울려 퍼지는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 기념 전국 대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 기념 전국 부분별 과학토론회 진행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 조선우표 전시회 개막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돐 조선후보 전시회 개막



다시금... 함께 나누기... 어린이... 새겨진... 새겨진... 새겨진...

